

9/16/18

설교 제목: 회개하고 돌아온 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14 장 1-9 절

- (호 14: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 (호 14: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 (호 14: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 (호 14: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 (호 14: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 (호 14:6)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 (호 14:7)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 (호 14:8)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 (호 14: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14 장은 호세아 마지막 장, 호세아 선지자의 아홉 번째 설교입니다.

13 장 여덟 번째 설교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이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하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지는 아홉 번째 설교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려 주실 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산 북 이스라엘이 해야 할 회개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호 14: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 14: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 14: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회개를 열거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고

둘째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보다는 참회하는 입술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고

셋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넷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릅니다.

회개는 주를 잃어버려 고아가 된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긍휼을 얻어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심판은 받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총을 선포합니다.

1.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것입니다.

(호 14: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북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당신께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기쁘게 받아 주시고 감싸안아 주시며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2. 번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호 14: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 14:6)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환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이고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건기 중에는 9 월 중순에 내리는 이른 비와 4 월초에 내리는 늦은 비를 제외하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건기 동안 동식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종일 뜨거운 햇볕에 시들어 말라 죽어가다가도 새벽 이슬을 먹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팔레스타인에서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북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동안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뜻으로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 이스라엘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이,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될 것입니다.

백합화는 겨우 내내 땅속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봄 이슬을 맞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겠다'는 말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북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는 북 이스라엘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을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올리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키가 높이 자라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넓게 퍼져 자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유익이 없기에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의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향기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북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완전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북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슬이 되어 주실 것이며 완전한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3. 복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도 함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 14:7)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복 이스라엘의 그늘에 거하는 자도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그 가족 전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빌립보 간수장이 그랬습니다.

(눅 19: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음으로 그의 온 집도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음으로 그가 섬기던 보디발 집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 39: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도 함께 복을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복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곧 교회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도 언급합니다.

1)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곡식이 밭에 심겨 싹이 났다고 해도 이슬이 없으면 소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새벽 이슬을 맞으면 싱싱하게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의 그늘 곧 교회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도 북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슬이 되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 포도 나무 같이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포도 나무는 볼품이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지만 열매가 일품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그늘 곧 교회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포도 나무 같이 볼품이 없고 아무 쓸모없을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3)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의 포도주는 달콤한 향기로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북 이스라엘의 그늘 곧 교회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레바논의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이 세상에 향을 발하여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4.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호 14:8)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굳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종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영광입니다.

끝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설교를 마치며 결론을 내립니다.

(호 14: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궁극적으로 의인에게는 생명의 길을 죄인에게는 사망의 길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술에 취해 딸들과 동침한 죄를 진 적이 있는 노아나 동성연애를 하는 소돔
건달들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 준 롯, 충신의 아내 밋세바를 강간한 다윗
등등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 중에 어떤 이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칭의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왜 죽으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그 아까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까?

제발 바보같은 아집은 이제 그만 내려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 합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돌아올 날을 학수 고대하시며 돌아오는 자에게 줄 완전한 복들을 쌓아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 오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